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는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분열 이후 남 유다 13대 왕으로 히스기야(여호와와 강하시다)가 즉위하자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하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대하 30:1).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책을 회복시켰습니다(2-3절).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21절). 정의는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외적으로 우상들을 철폐하고 개혁을 추진했다면, 내적으로는 제사 제도를 회복하며 십 일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 성숙을 꾀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는 의도적인 개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서 참된 신앙의 회복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 죄의 근원을 척결하는 결단이 따라야 함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준수 직후,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척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1절). 산당 및 제단을 제거 하였습니다. 본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때 우상 숭배 대상 중의 하나였던 모세가 만든 '눗 뱀'도 부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왕하 18:4).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자들의 당연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눗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눗 조각)이라 일컬었더라』
(왕하 18:4)

<질문과 응답>

* 히스기야 왕의 이방종교개혁은 무엇인가요?

<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

*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눗 뱀'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여 섬겼습니다 >

* 히스기야 왕은 '눗 뱀'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 '느후스단' 이라 불렀습니다 >

* 당신은 어떤 형상의 우상이라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 아멘, 아멘! >

* 당신은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 아멘, 아멘! >

2. 하나님의 제도를 회복시켰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 들의 성직 반차는 다윗이 제정하고(대상23:6), 솔로몬이 재확립한 것이었으나(8:14), 분열왕국 이후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히스기야 왕은 성전제사(예배)의 정신뿐 아니라, 그 형식까지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교회는 예배자의 신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의식과 제도의 필요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지배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십일조 제도의 재정비에 힘썼습니다(4-19절). 십일조의 공정한 관리와 분배를 위해 그 보관 장소를 건축하고(11절), 관리 책임자를 공정하게 임명함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12-13절).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의 저항과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적 결단이었고, 신앙적 측면에서 성직자들의 반차 제도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함으로써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근본적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

<질문과 응답>

- *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일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 * 당신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3.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유다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시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온 유다에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즉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통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21절).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을 합당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그의 삶을 다스려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때로는 정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이 따르고 아픔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41:10)

- *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나요? <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
- *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
- *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